

지방 건축계의 활성화 노력을 ...

It is necessary to Activate Local Architecture

申三鎬/서진건축사사무소

by Shin, Sam-Ho

지방건축계와 중앙건축계와의 관계는 상하 종속 관계나 예속 관계가 아닌 이상 지방건축만의 특수한 구조적 모순이나 병폐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볼 때 지역적 정체성으로 인한 건축적 수준이 낙후와 정보의 부족에서 오는 기술적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기술적인 요소보다 더욱 우려가 되는 것은 대개 건축인들의 건축적인 의식에 다분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건축인 스스로가 느끼는 소외감, 이것은 모든 문화가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각종 건축문화 활동 참여 범위가 간접적으로 격리되고 지방건축인 스스로가 지역건축의 활성화를 위한 능동적이고 자구적인 노력부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혹자는 “지역건축문화의 실종! 현대건축의 크나큰 비극이다.”라고 했듯이 지방건축계의 모순은 나아가 한국건축계의 모순과 병폐를 지적하는 것과도 같다.

여태껏 중앙집권형 권력구조 사회에서 지방건축문화에 대한 지원이나 정책적 배려가 전무했으므로 지방건축의 특수성이나 참신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근대 건축의 서양사조가 무비판적으로 수용되는 상황에서 지방에서는 이것을 재모방하는 모순의 악순환 과정을 통해 지방건축문화는 더욱 열악한 상태로 방치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지방건축계의 실태는 건축관계자인 설계, 시공, 건축행정자 등 모든 분야에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그 중에서 설계사무소의 실태를 보면 영세성과 함께 기술력의 축적 부족으로 현 상태에서는 크게 개선의 방향을 모색하기 힘든 상황이다.

소장 한명에 5명 정도의 직원으로 구성된 소규모 집단이 주류를 이루고, 명색이 종합건축사사무소라 해도 대개가 단독운영으로 단독사무실이나 별 다를 바가 없다.

이런 구조내에서는 모두가 슈퍼맨이 되어야 한다.

계획을 하고 상세도도 그려야 하고 견적도 하고 구조계산, 투시도 등 모든 것을 혼자서 다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전문성이 부족한 계획, 깊이가 없는 기술, 전문성에 대한 노하우의 축적보다는 다양한 걸치체 경험에 의한 전문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일정 수준 이상의

프로젝트 설계 수행능력으로 발전되지 못하는 것이다.

설계 각분야(수주, 행정, 계획, 구조, 실시, 설계, 감리, 견적, 시방, 전기, 설비, 조경)전문 인력의 포맷을 구성함으로써 각기 전문성을 살리고 깊이 있고 종합적인 설계능력의 배양과 기술 축적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최근 건축사의 다량 배출로 인하여 이러한 상황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덩핑에 의한 수주 경쟁, 이에 따른 설계, 감리의 질적저하의 우려와 함께 지방건축의 앞날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조직적 구성원 모두가 일정 수준의 전문성밖에 갖지 못하고 일정기간을 지나 면허를 취득하여 개업에 대비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것이다. 세분화된 조직 바탕위에서 각기 분야의 역할과 팀워크를 바탕으로 중무장되어야 대외적인 경쟁력에서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방의 대규모 프로젝트는 서울에 설계를 맡기려 가는 실정이고, 지방의 관공서 건물도 현상설계를 할 경우 계획규모보다 더 큰 실적을 자격조건으로 내세우며, 지방 설계자의 참여를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를 왕왕 볼 수 있다.

이러한 척박한 현실 속에서 지방 건축인의 각성과 사회변화의 추이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시각의 변화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얼마전 모 건축잡지의 편집장을 만났을 때 지방 도시의 큰 건물과 웅장한 건물은 알고 보면 거의가 서울에서 설계를 한 것이고, 막상 지방 건축사의 작품을 게재하고 싶어도 적극적인 참여도 부족하고 볼만한 건물을 찾기도 힘들다고 하였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지방건축의 현상환인 것이다. 어떤 획기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보다는 지방 건축인의 사고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96년부터 UR개방에 의해 설계업무의 범위도 사업성의 기획에서부터 설계, 감리, 준공 후 유지 관리에 이르기까지 서비스의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경우 지방의 중소규모 설계사무실의 입지범위는 더욱 부족하게 될 것이다. 또한 연초의 건축사 업무 보수요율의 상승에 따라 설계, 감리에 따른 무한 책임의 부담과 함께 설계 의욕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도 안고 있다. 이전같이 면허증 하나 가지고 회소성에 의해 어느정도의 생계는 보장되고 나름대로 사회적 지위도 주어졌던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전문 직업인으로서

지방 건축계의 개선 방향은 구조적인 모순에 대한 정책대안도 중요하지만 급선무는 모든 건축인이 급변하는 사회상에 대한 평형감각과 시야를 넓히고, 건축계의 내재적인 모순과 지역 건축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지방 건축의 지역성을 확보하고, 지방건축의 발전을 위한 역할은 지방건축인에게 주어진 몫이고 의무이다.

지역을 선도하는 건축사로서 소명의식이 투철할 때 지방건축문화의 질적향상과 아울러 한국 건축문화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급변하는 사회의 조류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기는 위협과 기회가 동시에 주어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위기의식에 사로잡혀 움츠러들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슬기를 모아 지방건축계의 활성화를 위한 기회로 전환시키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에서 건축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각종 정보 교류와 재교육의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각종 세미나나 전시회가 거의 서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맘먹고 참석을 하려하면 1박2일은 생각을 해야 한다. 물론 지방 자체에서 이러한 건축행사를 기획, 진행을 하면 굳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서울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이다. 어느 지방이건 건축 3단체(건축학회, 건축가협회, 건축사협회)가 있지만 정작 전문 집단인 모임으로서 건축관계 활동이나 행사는 거의 본 적이 없다. 그러다 보니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바도 없으므로 건축에 대한 지방건축문화의 인식도 낮아지고 우리의 위상도 점차 낮아지게 되는 것 같다. 지역 건축 문제에 대한 쟁점이나 관심사를 건축단체에서 공청회나 세미나를 통하여 여론을 수렴하고 건축 및 도시행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지방 건축 단체의 중요한 역할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행사의 홍보와 참여가 중요한 데 그렇지 못하다는 데 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지역에서 얼마전에 지역 건축사들의 작품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출품하는 작품수가 부족하여 전시회를 연기하였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러한 참여 의식의 결여는 실제 건축설계를 업으로 하면서도 건축의식에 대한 자멸감과 소외감에 대한 반응으로 보여진다. 한시바빠 이러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건축 교육 문제’는 지방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건축계의 전반적인 문제이다. 건축종합예술학교의 설립이나 학부 자체의 커리큘럼 변경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범위내에서 산학 협동체제의 연계성 부족을 들 수 있다. 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은 졸업생이 정작 사무실에 들어오면 실무 적용에 상당한 애로 사항이 많다. 학교에서는 실무를 위한 건축이 아닌, 학문으로서의 건축을 광범위하게 접하다 보니

아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는 머리만 큰 건축인을 양산하게 되는 것 같다.

제도적으로 교수들의 설계실무 참여제한은 반대로 실무를 하는 건축인들이 곧 실무를 해야 할 학생들에게 실무교육을 할 수 있는 관계를 단절시켜 버리는 아이러니한 구조속에서 우리의 후배들은 자라고 있다. 일부 지방에서는 ‘대학생 건축디자인 캠프’를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건축디자인 실무를 간접 경험하게 하고, 나아가 지역의 후배들에게 지역건축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는 산학 관계의 좋은 예를 볼 수 있다. 지역의 모 교수는 “이제는 지역을 뛰어넘는 건축적 비전을 갖는 우리의 지역 건축가를 만들기 위해 교육계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말하였다.

‘지방건축’이란 지역 정서와 환경에 의해 정착된 지역의 성향이 반영되는 건축문화라고 할 수 있다. 해양도시 건축, 내륙도시 건축 등 각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산물이 되어야 한다.

서울의 건축은 한국적인 건축이 될 수가 없다고 본다. 오히려 서울의 건축은 국제적인 조류에 의해 형성된 무국적주의적인 건축의 전시장인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문화란 중앙의 문화가 한국적 문화를 대변할 수 없듯이 지역 건축간의 상호적인 균형과 다양성의 존중에 의하여 전체 건축 문화의 질을 높일 수가 있다. 지방 건축은 중앙 건축에 대하여 종속관계가 아닌 지역적 전통과 다양한 지역어휘를 바탕으로 지역적 아이덴티티(Identity)를 가져야 한다.

즉, 지방 건축계의 개선 방향은 구조적인 모순에 대한 정책대안도 중요하지만 급선무는 모든 건축인이 급변하는 사회상에 대한 평형감각과 시야를 넓히고, 건축계의 내재적인 모순과 지역건축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지방 건축의 지역성을 확보하고, 지방건축의 발전을 위한 역할은 지방건축인에게 주어진 몫이고 의무이다.

지역을 선도하는 건축사로서 소명의식이 투철할 때 지방건축문화의 질적향상과 아울러 한국 건축문화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